

정부 구조조정 '세 갈래' 진행

경기민감 업종·상시 구조조정·공급과잉 업종 등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 ▲상시 구조조정 ▲공급 과잉업종 등 세 갈래로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책 은행 전전성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협력 제고를 위한 촉진법(기활법)을 통해 법률체제도 마련됐다"며 "사즉생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은 범정부 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정한 뒤 채권단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자율협약을 신청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조선·해운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들 업종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기촉법을 활용한 상시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지난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을 대상으로 39곳의 주채무계열(계열사 4443곳)을 발표한 바 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9개 대기업

계열은 5월말까지 담당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또 관리대상으로 지목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 평가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과잉업종은 기활법을 통해 구조조정한다.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으로는 조선업과 함께 철강, 유화 업종 등이 꼽힌다. 이들은 대표적인 수출 제조업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아졌고 중국 기업들까지 대두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 또는 산업 차원에서 설비를 감축하거나 생산량 또는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진수 기자



패밀리 티셔츠 좋아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3층 의류매장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패밀리 티셔츠' 2종을 출시하고 홍보모델들과 함께 포토 이벤트를 갖고 있다.

전북주택금융공사,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이화균)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타 쓰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25일 출시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늘려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 중장년층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시 최대 연 0.3%p의 전환장려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에게 최대 15% 더 많은 월지급금을 드리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됐다.

이화균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1억 5천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 최대 15% 더 많은 월지급금을 드리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내 가임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현실을 고려할 때 3종 세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3종세트 출시로 주택연금의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 3조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택연금 예약 상담제를 이용하거나 전북지사(063-249-273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전주상의,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26일 전주상공회의소는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선홍 회장 등 기업인 30여명과 한동연 청장등 광주지방국세청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인들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경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때에 기업에게 힘이 되는 세정지원이 요구된다"며 "기업의 투자활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이 세정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조사권을 국제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과 세무조사시 해당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관할 구역의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경영여과기업과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특허출원비용의 세액공제 포함으로 기업부담 경감 요망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 인하 요망했다.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해 기업들에게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보상계획 '미적 미적' 눈치보기 급급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대표이사 26일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정작 구체적인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미적대는 등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김상현 사장은 이날 오전 강서구 등촌동 소재 홈플러스 신사옥 이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과 관련해 진심어린 유감과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향후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조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여부를 약속했다.

김 사장은 다만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계획은 이 자리에서 내놓지 않았다. 또 보상금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물질적인 보상은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나 협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롯데마트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보상을 진행하기로 한 계획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에서 판매한 제품

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및 가족들이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하는 등 또 다시 장기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가 이처럼 알맹이 없는 사과와 뜻만 연이어 언급하는 것은 구체적 보상계획은 최대한 미루는 한편 자사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돌리고,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주기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진행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홈플러스 스스로가 피해자들에게 대해 진정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전북銀, 한부모가정 '가족애 발견' 참가자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다음 달 11일까지 접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윤택)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지역 본부장 구미희)과 함께 한부모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 '가족애 발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애 발견'은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가 부족한 한부모가정이 여행을 통해 서로 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1일까지 전북은행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접수받으며, 선정 가족

은 5월 16일 발표한다. 경제적 상황, 여행의 효과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50가정이 선정되며, 가족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최대 80만원의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족이 함께 참여해 여행을 직접 계획하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자유롭게 다녀오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063-276-2800)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전북경진원, 오늘 전주에서 도내 마을기업 워크숍 개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27일 전주 학전마을에서 도내 99개 마을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016년 전라북도 마을기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마을기업이 직접 준비하는 자립형 워크숍이고 도내 마을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며 상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주 한옥마을 협의회가 준비한 건강한 한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진안 원연장마을과 정읍 다모이아가기 준비한 짬뽕공예와 수제 미스트 제작 체험 프로그램도 공유한다.

마을기업 관계자는 "마을기업 간 커뮤니티 활성화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마을기업 간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무역협회, 탄소기업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26일 오전 12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회의실에서 제2차 '전북 탄소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데크카본, 에니에스, 벤투스, 원광이엔텍, 이오렉스, 유광화학, 피치케이비, 티엘씨 등 15개 전북탄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탄소산업 최신 동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탄소 제품 자체에 대한 R&D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탄소 제품 및 소재 제조장비 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또 전북지역 탄소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 등과의 보다 많은 접점마련이 제기됐다.

제3차 세미나는 6월께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5월께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홈페이지(jb.kita.net)에 공고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온라인 쇼핑몰, 어린이 날 선물매출 증가 '함박웃음'

백화점, 마트를 찾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어린이 날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육선에 따르면 이날 11일부터 20일까지 장난감 전체 판매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형완구는 38% 판매가 증가했다. 로보완구는 120%, 봉제인형·팝인형은 17%, 나노블럭은 195%, 승용완구는 20% 전년동기대비 판매율이 올랐다.

같은 기간 G마켓은 장난감 판매율이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발달완구 20%, 건담 23%, 블록 16%, 모델링공구·도색용품 25%, 무선모형·RC완구 124%, 보드게임 39%, 스포츠 완구 19%, 역할놀이세트 24% 등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이성주 기자

